1998. 9. 15 창간

춘천 성시

vol.194

1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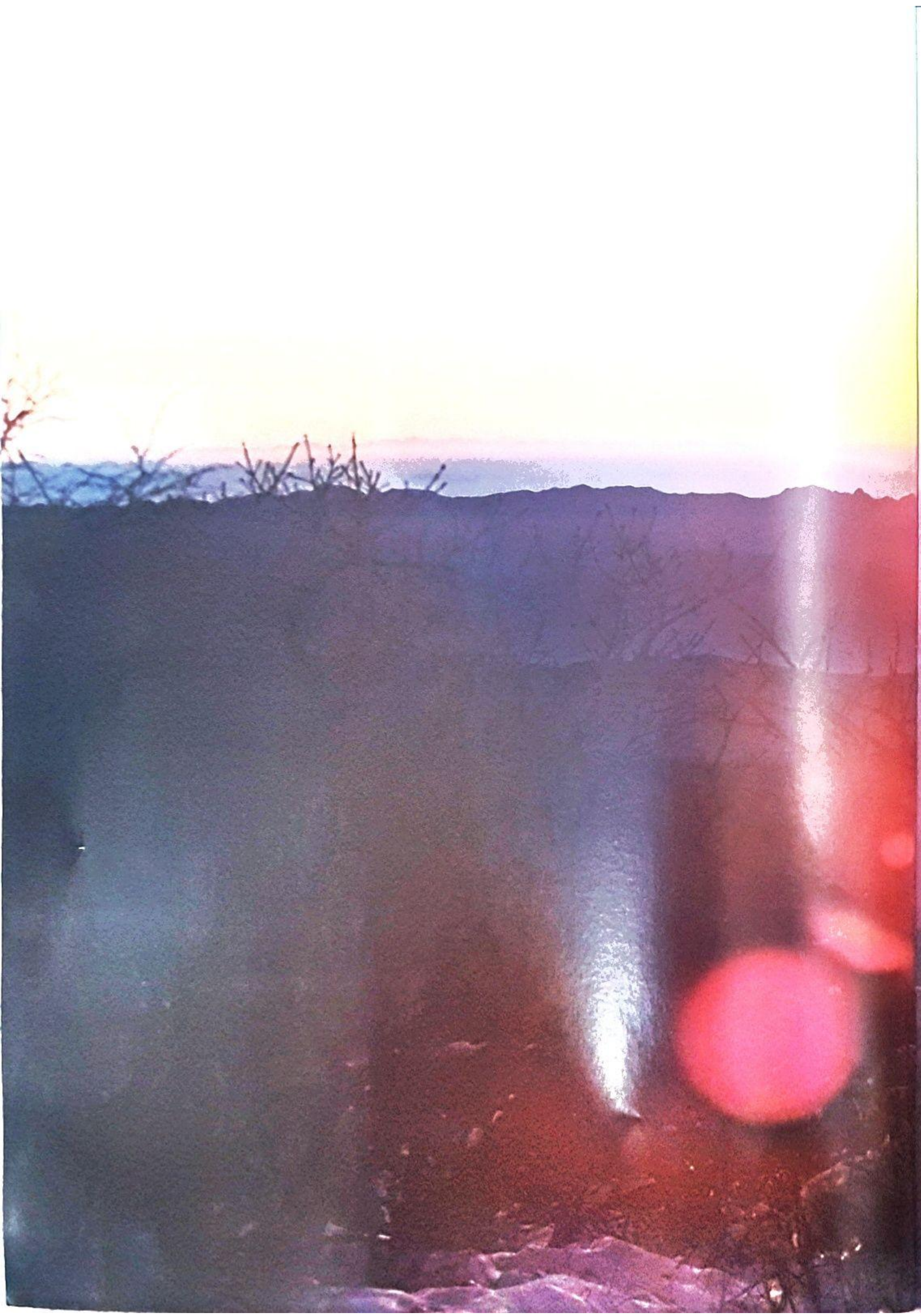
특집 새해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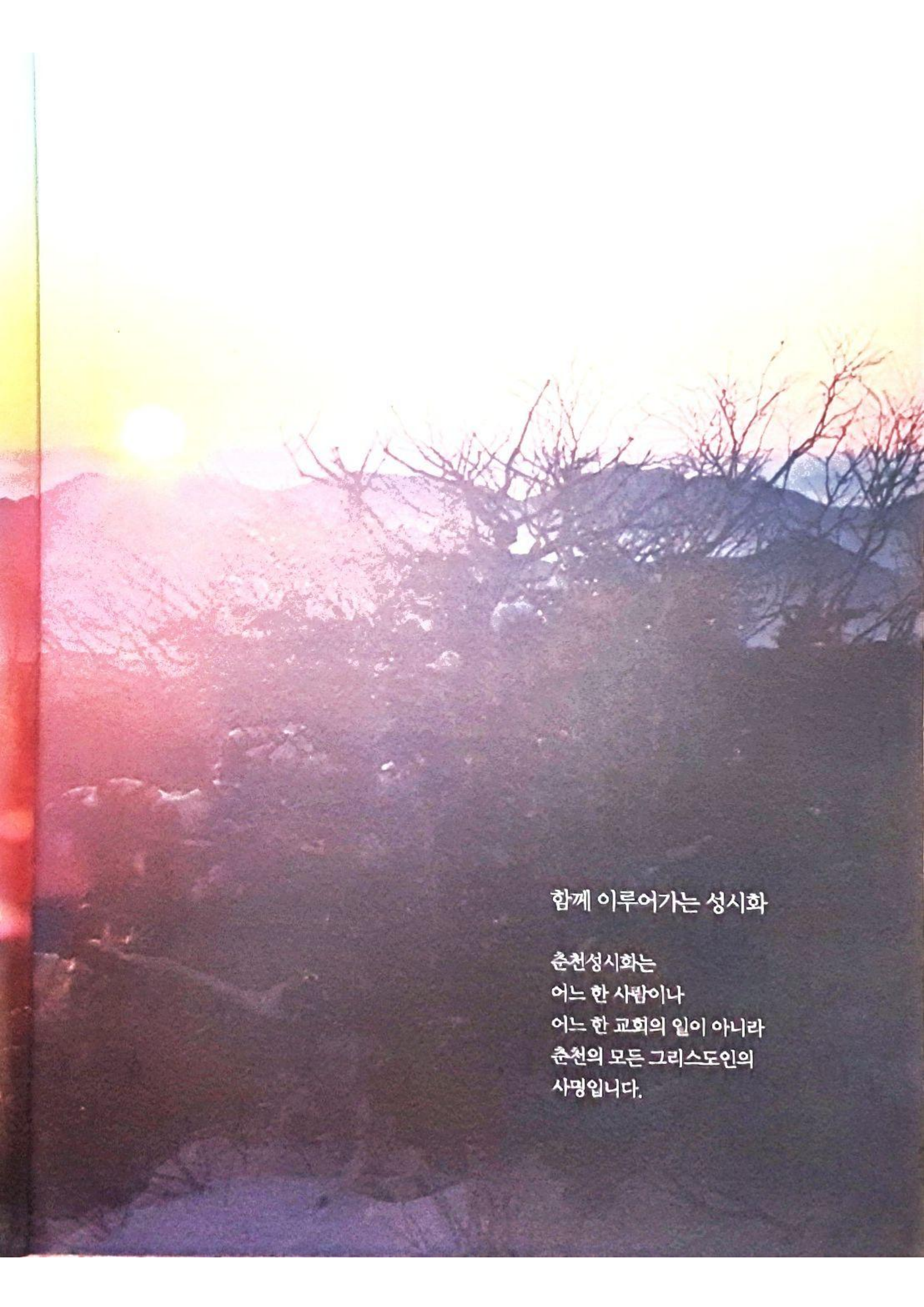
성시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회

선교 아프리카 케냐 러시아 방문기

통일 춘천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3주년 12시간 기도회

다음세대 차별금지법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춘천성시 매거진은

춘천을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비전을 가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소중한 매체로 성시를 꿈꾸는 편집위원들이 제작하고 있으며,

성시를 기대하는 크리스챤들에게 배달됩니다.

●

춘천성시 매거진은

매월 4,000부가 발간되고 있으며

춘천지역 전 교회와 기관, 선교단체, 개인과 전국 성시본부로 무료 배포되고 있습니다.

●

춘천성시 매거진은

개인, 단체후원 및 광고등 후원으로만 제작되고 있습니다.

춘천성시 매거진을 선물해주세요.

정기구독 신청 : 월 5,000 / 년 55,000 (10% 할인)

• 원하시는 주소로 배달되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후원회원이 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최우선의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

Editor's Letter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춘천 성시매거진 독자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우리 민족이 통일을 꿈꿔 온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춘천 성시매거진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표지도 새로 도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요청에도 다양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 성시매거진이 춘천 성시화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획 기사를 준비하려 했으나 여러 분들이 원고 의뢰를 수락하지 않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올해에는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회(종교), 가정, 교육, 언론, 예술 등 많은 영역의 연륜있는 지도자들뿐 아니라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각 영역별로 지면을 통해 다양한 토의를 통한 발전이 일어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춘천 성시화운동의 기반이 되는 준거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랜입니다.

지난해에는 편집위원 중 몇몇 분들이 개인 사정 등으로 함께 하지 못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춘천 성시매거진을 만들어 가는 일에 관심있는 춘천의 30대 40대 젊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빕니다.

편집장 **최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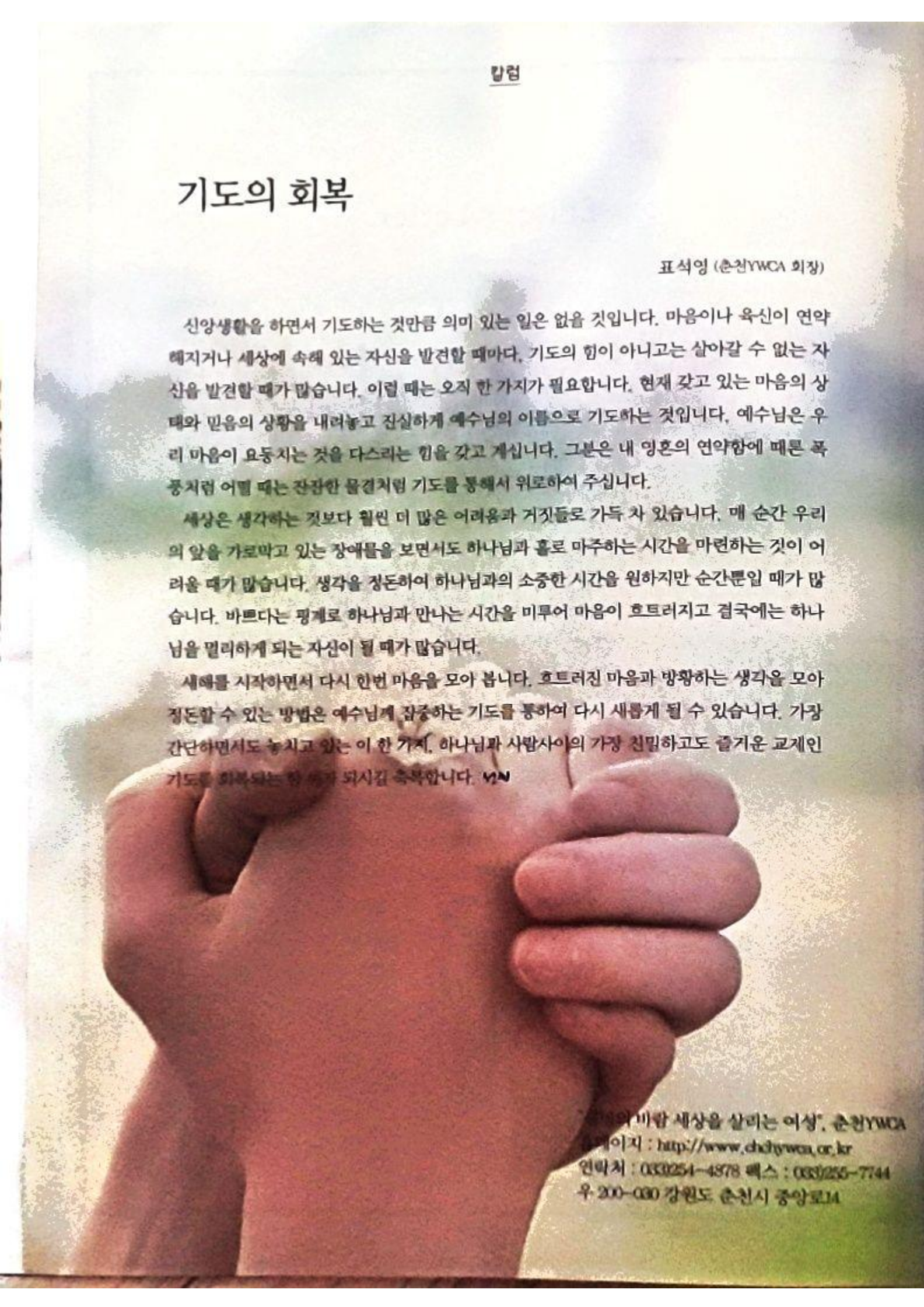
기도의 회복

표석영 (춘천YWCA 회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나 육신이 연약해지거나 세상에 속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기도의 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상황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다스리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의 연약함에 때론 폭풍처럼 어떨 때는 잔잔한 물결처럼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거짓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정돈하여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원하지만 순간뿐일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미루어 마음이 흐트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자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봅니다. 흐트러진 마음과 방황하는 생각을 모아 정돈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이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가장 친밀하고도 즐거운 교제인 기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Contents

Jan 2015 vol.194

Editor Letter 003

기도의 회복 **칼럼** 004



008


019


032

007 **캘린더** Jan 2015

008 **COVER인물** 모던 다락방

012 **사설** 평화통일의 길을 예비하라

014 **새해인사**

019 **시** 축시

022 **성시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회

024 **통일** 춘천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3주년

028 **선교1** 러시아 방문기

032 **선교2** 아프리카 케냐

036 **다음세대** 차별금지법

039 **예수안에서 본 예술** 아벨의 죽음

040 **인물2** 우승미 자매

044 **설교** 성시화는 영향력이다

046 **책 이야기**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048 **영화산책** 십계와 엑소더스

050 **예수의 미소 53** 밥 맛 좋은 성도가 되자

051 **만평/예향**

053 **좌충우돌건강이야기** 단순포진의 비밀

054 **12월이야기**

057 **음악이야기** 쥬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059 **알려드려요**

060 **후원자**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지용찬,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2015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과

SUNDAY	MONDAY	TUESDAY
4	5 [성시본부] 오전 11시, 사무국 예배 [어린이 전도협회] ~9일 3일클럽 전도자 훈련 [JDM] ~9일 겨울집회 [성시매거진]~6일 편집위원 MT	6 [춘천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오전 11시, 중앙성결교회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 오후 7시, 동부교회
11	12 [쥬빌리] 37차기도회 저녁 7시15분, 주향교회	13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 오후 4시, 주향교회
18	19 [JDM] 겨울청소년수련회 ~22일, 베니키아 호텔 (청풍)	20 [MF] ~22일 숨수련회(청소년수련회
25	26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27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오전 6시30분, 제일장로교회

「 이달의 기도제목 」

♥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하나님나라의 비전으로
도시변혁과 복음적 평화통일
세계선교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데
함께할 동역자들과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새해 맞이 예배 오전 7시30분, 봉의산 새해맞이 촛불통일기도회 오후 2시, 주향교회	**2** [IVF] ~17일 겨울훈련 (아볼로성경학교, 섬김이, PBS학교)	**3**
	8 [기드온 춘천캠프] 조찬기도회 매주 오전 7시	**9**	**10**
	15	**16**	**17**
	22	**23**	**24**
	29 [성시본부] 오전 7시, 이사회조찬모임	**30**	**31**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모던 다락방’

정병걸 형제 | 김윤철 형제

2014년 성탄을 앞두고 춘천 명동 지하상가에서 열린 성탄거리전도 축제에서 유난히도 남성 듀엣의 노래가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활기차면서도 상큼한 두 사람의 노래가 많은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기에 충분했다. 알고 보니 춘천에서 자생한 어쿠스틱 듀오였다. 얼마 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름이 '모던 다락방'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먼저 편안한 팀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구요. 다락방하면 안 쓰는 물건을 넣어 두기도 하고, 소중한 물건을 보관을 해 두는 조금은 비밀의 공간인데, 누구에게나 마음에 그런 다락방이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락방이 나만이 간직하고 싶은 비밀스러운 공간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여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편안하게 노래로 담아서 전하고 싶은 마음에 다락방이라고 했고, 모던이란 말을 붙인 것은 조금 세련되게 느껴지기 위한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듀엣을 이루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병걸형제 저희는 교회의 선후배 사이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녔기에 자연스럽게 알고 지냈고, 신성감리교회 청년부에서 윤철이는 드럼을 치고 저는 베이스쳤습니다. 그러다가 윤철형제가 카츄사로 군복무 중에 SNS에 자작곡을 올렸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주 좋았어요. 댓글에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제대하면 팀을 이루어서 노래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윤철형제 저는 원래 다른 공부를 했고 음악은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언젠가 앨범을 내서 돈을 꼭 벌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은 병걸 형을 만나서 꿈을 실현하게 된 것이 놀랍습니다. 전공이 사회복지인데 지금은 음악에 집중하고 있으니 저에겐 삶의 큰 변화가 있는 중입니다.

두 분이 모두 베이스와 드럼을 했는데, 보컬을 하게 되었을 때에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병걸형제 밴드에서 10년간 베이스를 치면서 사이드 포지션에 있었지요. 그런데 '모던다락방'을 하면서 노래를 하며 Front에 서게 되면서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Sign 요청도 많았어요. 남자들에게 헹가래 치는 경험도 하고, 청중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더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많아졌습니다. 앨범을 처음 내고 부산에 갔었는데 우연히 공연을 하다가 '첫 사랑'을 불렀는데 거기서 일하는 스탭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면서 노래로만 듣던 분을 직접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좋다고 하면서 공연이 끝나고 포토 타임을 가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던다락방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언제부터이며, 데뷔곡은 무인가요?

첫 앨범이 2013년 12월 30일에 나왔고, 온라인 멜론에 2곡을 올렸습니다. 첫 곡이 '첫사랑' 이었고 두 번째 곡이 '안아주오' 였습니다. 첫 사랑은 초등학교 때에 좋아했던 친구에게 곰 인형 선물도 하고, 편지도 주고 받았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니? 라는 내용입니다. 음원 차트에서 멜론 인디음악 1위를 했습니다. 이 곡이 드라마 tvN에 아홉수 소년에 OST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안아주오' 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안아주는

것이 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아 주는 것이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표현되지 않을 때 가만히 안아주는 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 온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을 표현한 곡입니다. 이 곡을 부르면서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안아 주오를 부를 때 서로 안아주는 이벤트를 하곤 합니다. 홍천 공연장에서 갑자기 엄마와 포옹하는 딸이 우는 거예요. 평소 엄마에게 표현을 잘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엄마를 안아 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구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될 때 저희도 노래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 활동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라디오 방송인 오유진의 예감 좋은 날(G1)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부 Guest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은 주로 공연에 많아 나갑니다. 춘천에서 여러 행사들이나 축제 등에 나갑니다. 아직 교회에 가서 섬겨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곡을 준비해서 섬겨보고 싶습니다. 올해 최고의 일은 KBS 음악 방송인 All that Music에 좋은 뮤지션들이 많이 와서 구경 가보았다가 우리가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히 2015년에는 음악하는 분들이 하는 락 페스티발이 많은데 큰 무대에 가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는 섬기는 나눔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신성감리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박유식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하시는 분이시구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깊은 성숙을 추구하십니다. 특징이라면 예배 공간으로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문화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사용하는 문화 공간이고, 교회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동아리, 선교 단체나 교회 등에서 집회나 공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예전에 춘천시 찬양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는 두 명의 훈남이 부르는 노래가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길 바라며, 이런 크리스천 뮤지션이 춘천에 있다는 게 참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MN

취재 /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평화 통일의 길을 예비하라



2015년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이자 민족이 분단되어 통일을 꿈꿔온 지가 70년이 되는 해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되었던 땅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회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회복의 은총이 임하길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는다.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과 북한이 포로생활 70년을 마감하고 해방되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은 특정 교파나 기독교회만의 일이 아니다. 고난과 분단과 억압 속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아직도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면 진보냐 보수냐는 이념 논쟁이 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마당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아직도 춥고 어둡다 하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케 되는 날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과 같이 주님이 임하실 길을 기도로 예비하고 닦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통일염원 7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평화의 종이 되어, 민족을 섬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교회간의 파벌 의식과 갈등을 씻어 내고, 서로 형제애를 가지고 섬기며 존중하여야 한다. 여러 교파 여러 교회가 지역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와 교파간의 일치와 연대를 이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춘천에서 평화와 연합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꿈꾼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를 흐트러 놓으려 하지만, 우리는 연합해야 살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체제의 분단보다 70년 세월이 흐르도록 화해하지 못한 감정과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적개심으로 길들여

진 집단적 체면이 더 큰 문제이다.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평화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치관과 윤리관을 지닌 거듭남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또한 민족을 다시 살게 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높여서,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사랑과 이해로써 분열과 다툼을 이기는 평화운동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세대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고민은 과연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시키느냐의 문제이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그 의식과 행동 양식에서 기성세대와 뚜렷하게 차이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풍요 속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었던 이들로, 자기를 무엇과도 바꾸려하지 않는다. 철저히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들은 감성적으로 개인주의적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획일주의나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또한 이들은 소비지향적 생활 풍조에 영향을 쉽게 받는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갖고 언어를 구사한다. 어쩌면 전통적 기성세대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면 이들은 반항적 세대이다.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가치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성세대가 어떻게 신세대를 교육적으로 바로 양육하고,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자들로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다음 세대들인 학생과 청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의 주역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목회는 한쪽으로 치우친 목회가 아닌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차원을 포함한 통전적인 목회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혼돈된 가치관에 의해 영향받고 있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가 바른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내에서 기성세대의 그릇된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 방관하게 만들고 냉소적이 되게 하는 것 같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구호를 외치는 일은 쉬울지 모르지만, 평화와 통일을 삶으로 준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되, 지역교회 안에서 먼저 평화하여 연합하는 일과 감정과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고 평화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므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글 / 최영조 기자
gmccyj@naver.com



하나님의 샬롬으로 세상을 비추는 춘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김창환목사

'춘천성시화' 라는 말이 열정을 일으켜 '나' 라도 참석해서 자리를 채워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 것이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쌓이더니 어느새 성시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비춰져 이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후 몇 분의 교계 선배님께 짐이 무거우니 도와주십사고 말씀드리니 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새 건물에 새로운 가게를 열기 위해 인테리어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작은 사업이지만 기대가 되고 정열을 바쳐 해보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24년전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춘천시민 한 분 한 분 모두, 새해가 되는 2015년은 새 사업에 도전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개척에 도전하는 새내기 목회자의 열정으로 갓 입학한 학생의 순수한 결단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의원님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동역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중·소상공인들과 교육, 경찰, 법조, 의료, 예술문화, 금융, 스포츠, 군인, 방송신문 언론, 사회복지구호단체, 연구원들, 출판, 정치, 경제 등 전분야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흥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동역하며, 춘천시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는 할아버지, 할머니, 일터가 즐겁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아빠, 엄마, 학교에 사랑이 있고, 소외되어 그늘진 곳 없이 평화의 손길이 미치는 사랑의 도시,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는 미래도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와 교회가 만나 하나님의 샬롬(평화)으로 세상을 비추는 춘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015년 임원명단

이사장	김창환목사(온누리교회)	부이사장	박인관목사(광염교회), 이수형목사(순복음춘천교회)
본부장	지용찬목사(은혜장로교회)	부본부장	조영춘목사(예광교회)
사무총장	이병철목사(주향교회)	사무차장	장춘근목사(남산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지용찬 목사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여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새해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이며 한 지역 안에 있는 동역자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서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합시다. 인내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십시다. 우리 모두 선한 일에 동참합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약속을 따라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여 2015년에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춘천기독교연합회 2015년 임원명단

회장 지용찬목사(은혜장로교회) | 수석부회장 차덕수목사(강원침례교회)
부회장 김종익목사(광명장로교회), 남궁연장로(중앙성결교회)
총무 오의석목사(순복음조은교회)
부총무 이광우목사(신촌장로교회), 정덕현목사(푸른초장교회), 류주영장로(석사감리교회)
서기 함영도목사(기쁜장로교회) | 부서기 차성회목사(샘밭침례교회)
회계 김항기장로(석사감리교회) | 부회계 권영광장로(순복음춘천교회)



예수쟁이들 어디 없습니까?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회장 김종익목사

아름답고 풍요로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주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신 지체들에게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회장을 맡아 목회자 여러분을 섬기게 된 춘천광명장로교회 김종익목사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이 막중한 섬김이 사역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 횃불을 든 춘천지역의 동역자 여러분과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춘천의 모든 성도들의 많은 사랑의 중보기도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6명의 임원들은 고전4:1-2절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는 말씀과 딤후4:17절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는 말씀에 힘입어" 부단히 열심을 내보려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로 2014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15년에는 더 훌륭한 목회와 형통한 사업,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종 황제가 마지막에는 '야소교인 밖에 있느냐!' 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았다 하잖습니까? 오늘날도 비신자들 역시 '예수쟁이들(예수님 믿는 전문가들) 어디 없습니까?' 하며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자들로 인하여 비신자들이나 사회나 나라가 평안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로 인하여 춘천이 더 거룩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2015년 임원명단

회장	김종익목사(광명장로교회)	부회장	박찬욱목사(새순성결교회)
총무	정덕현목사(푸른초장침례교회)	서기	김용기목사(푸른샘감리교회)
회계	이승구목사(삼천동성결교회)	감사	함영도목사(기쁜장로교회)

성시화에 기여하는 홀리클럽



춘천홀리클럽 회장 황병호 장로

안녕하십니까?

춘천홀리클럽 제19기 회장으로 일하게 된 춘천제일장로교회 황병호장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회장직을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한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홀리클럽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기독교연합회의 정규적인 집회 및 성시화선교대회 헌신, 시민을 위한 전도특강과 시내 전도활동 행사에 적극 참여와 동시에 정기기도회, 미자립교회 방문 격려,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지원협력, 중고등학교의 기독동아리 표창, 이단대책 프로그램 적극 참여등 춘천시 복음화와 성시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홀리클럽은 평신도로 구성되며, 장로, 권사, 집사님들 남·여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10개 위원회를 두어 은사에 따라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역 각 교회 평신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천홀리클럽 2015년 임원명단

회장	황병호장로
부회장	김종열장로(신성감리교회), 이영규장로(석사감리교회), 이용규장로(석사감리교회), 김명숙권사(중앙성결교회), 장준홍장로(명성감리교회), 강철주장로(창대감리교회), 이진배장로(성광장로교회), 김영관장로(신성감리교회), 조정일장로(광장감리교회)
감사	석기호장로(광장감리교회), 박병철장로(신남감리교회)
사무국장	석광훈장로(석사감리교회)
사무부국장	한택수장로(온누리교회)
서기	조경화장로(소양성결교회
회계	남준섭장로(순복음춘천교회)



강원 CBS 선교방송의 지경을 넓히며

강원CBS본부장 **임형섭**

떠오르는 동해의 태양빛이 2015년 우리 강원도를 가장 먼저 밝게 비춰주는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동서남북 강원도민의 뜨거운 열기가 뭉치고 확산되어 2014년에도 전도민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는 한해였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BS의 복음방송을 통하여 2백만 강원도민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40여 년 전 발원된 성시화운동의 불길이 전 도시, 전 세계로 번져나가 성시운동의 명품도시 춘천이 만들어진 것처럼 살기 좋은 강원, 행복한 도시 춘천 만들기 운동으로 넓고 푸른 의암호반의 기적이 일어나는 2015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춘천은 모두가 인정하는 성시화의 모델도시입니다. 성시화운동이 증거이고, 춘천의 교회와 성도들의 손으로 세워진 기독교방송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과 도민의 손으로 세워진 춘천CBS가 그 복음방송의 지경을 넓히고 글로벌미디어 방송의 전초지 역할을 감당하고자 강원CBS로 명칭을 변경하고 춘천, 강릉에 이어 CBS원주방송을 개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CBS선교방송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행복한 2015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특별히 성시매거진 춘천성시의 무궁한 발전과 강원도민 모두의 행복한 2015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CBS방송국 임원

본부장 **임형섭**
보도제작국장 **권석준**
기술국장겸 총무국장 **박종인**
선교국장 **김용배**

축시(祝詩)

춘천 그리스도의 교회 조영호 목사

미명의 아침 씨앗 되고
찬란한 정오 빛 땀 되어 흘렀네.
짙어지는 저녁노을 영혼을 키웠도다.

한 여름 장마 푸름을 잉태하누나.
아팠던 가슴 생명을 뿌리누나.
드렸던 기도 노래되어 여기에 차는구나.

긴 기도와 그분 숨결이
사랑, 바람, 세월을 빚어
오늘을 그리고 새 날을 맞는도다.

사랑은 인내와 풍파를 넘어
내가 되는 오늘은 사연을 먹고
새싹처럼 이렇게 돋아났구나.

이제 저 바다로 출항하라
키우고, 꿈꾸었던 내일로 가라
하늘로 그대들의 기상을 보게 하라

소양강의 푸름과 대룡산의 붉은 아침
그리고 오대양 육대주 그분의 소유되어 흐르도록 하라.
가라 마라도를 넘고 저 흑암의 땅 사망에 앉은 백성들에게
이제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을 제단에 올리고
영원으로부터 오는 새 노래를 준비하라.

우리는 오늘 배를 띄운다. 그분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 나를 던진다, 그분의 소원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축복한다. 꿈꾸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고개를 숙인다. 그분의 발아래서
이제 우리 모두 손잡고
그분 오는 길목으로 달려가자
두 손을 들고 우리 님을 맞이하자
내 주님께 우리의 노래를 들려 드리자.
내 아버지께 열매를 보여 드리자.

내일이여 오라, 새 날이여 오라,
바다 건너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 온
성시화의 가족이여, 예수의 사람들이여
눈을 뜨게 하라, 심장을 뛰게 하라,
은혜 입은 백성과 나라를 건져 내라.

-이천 십 오년 일월 초하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임원일동

은혜장로교회
지 용 찬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춘천시 근화동 748-10
033-241-4315

강원침례교회
차 덕 수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88
033-262-9100

광명장로교회
김 종 익 목사
춘천교역자연합회 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춘천시 후평1동 747-1
033-251-0788

중앙성결교회(유동선 목사)
남 궁 연 장로
춘천장로연합회 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춘천시 약사 고개길 14
033-256-3536

순복음조은교회
오 의 석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춘천시 옛경춘로 826번지
033-263-4321

신촌장로교회
이 광 우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부총무
춘천시 동내면 신촌2리 345-44
033-261-1865



푸른초장교회
정 덕 현 목사
춘천교역자연합회 총무
춘천기독교연합회 부총무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 2길 24
033-263-0091

기쁜장로교회
함 영 도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서기
춘천교역자연합회 감사
춘천시 삼천동 156-1
033-257-2250

샘밭침례교회
차 성 회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부서기
춘천교역자연합회 부서기
춘천시 신북읍 맥국2길 48-5
033-241-9107

석사감리교회 (손학균 목사)
김 항 기 장로
춘천기독교연합회 부서기
춘천시 석사동 360-3
033-261-6823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권 영 광 장로
춘천기독교연합회 부회계
춘천시 동면 만천리 595-1
033-253-2741

강변제일성결교회
손 광 오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감사
춘천시 온의동 73-4
033-255-1150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남 준 섭 장로
춘천기독교연합회 감사
춘천시 동면 만천리 595-1
033-253-2741

새순성결교회
박 찬 욱 목사
춘천교역자연합회 부회장
춘천시 석사동 859
033-253-6106

푸른샘감리교회
김 용 기 목사
춘천교역자연합회 서기
춘천시 효자3동 630-32
033-255-5023

삼천동성결교회
이 승 구 목사
춘천교역자연합회 회계
춘천시 삼천동 28-44
033-244-1305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회를 다녀와서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 11시 안산동산교회 (전국대표자 120여명이 참석)

새롭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추대되신 김창환목사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및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회를 다녀왔다. 본인도 처음으로 참석하는 모임이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로 섬기는 김인중목사가 시무하는 안산동산교회에서 12월 18일(목) 오전 11시에 열렸다. 전국 각지에 대표회장들과 사무총장들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서울 민들레 중보기도팀이 반갑게 맞이하며 섬겨주어 들어서자마자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다. 초면인 분들도 많았지만 성시화의 같은 비전을 품고 만나는 모임이라 어색함이 없이 편안하게 교제하며 나눌 수 있었다. 아래 지방에서는 눈이 많이 내려서 늦게 오거나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도 발생했지만 많은 지역에서 모였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이신 이병진목사의 사회로 1부 기도회가 시작되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김홍규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세월호 유가족과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최태순목사-충남 대표회장), 한국 교회의 회복과 가장을 위하여(이건오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상임회장), 330만명에 육박하는 알콜, 마약, 인터넷(게임), 도박 예방을 위하여(박경배목사-대전 대표회장), 성시화사역을 위하여는(박태동목사-대구 대표회

장), 한반도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하여(김정식 목사-광주 본부장)이 각각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성시교회를 섬기는 명성훈목사가 성시화의 영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뒷면 설교 란에 있음). 명성훈목사의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짚는 말씀이 성시화운동의 방향에 대해 더 선명하게 조명했다. 이어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인 김인중목사는 성시화운동이 첫째로, 자리다툼이 없으며 둘째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키는 운동이며 셋째로, 기초적 신학 마인드가 복음 전도이기에 가장 순수한 복음운동이라고 말씀하셨다. 뜨거운 기도와 냉철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씀과 열정을 가진 동역자들의 모임 속에 영적 연대감이 형성되어 성시화의 비전이 지역뿐만 아니라 교계에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공감하게 시간이었다. 안산동산교회에서 맛있는 준비한 식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총회를 개최하여 김인중목사님과 전용태장로님을 다시금 총재와 공동 총재로 추대하였다.

아울러 2015년은 해방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70년이 하나님께서 복음적 평화통일을 허락하시는 그런 희년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드렸다. 무엇보다도 전국 각지, 뿐만 아니라 해외 디아스포라들이 성시화운동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의 힘을 모우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김인중 목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은 2020년경을 통일의 시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내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북한선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산파 역할로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의 연합기구들이 전체적으로 마음모아 2015년 1월 1일(목) 오후2시~5시까지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 통일의 새날을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새해맞이 통일촛불기도회'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춘천, 경남, 광주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와 독일 베를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우크라이나 키에브, 말레이시아 쿠알라롬푸르 등을 비롯한 해외 도시에서도 동시간대에 통일기도회를 개최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통일 전문가들을 통해 제작된 '복음적 통일 기도 소책자'는 필요한 모든 기도제목을 담고 있다. 부디 이 기도회가 동서독의 분단의 장벽을 허문 니콜라이의 교회의 기도회가 되어 분단의 벽을 허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기대마지 않는다.

취재 /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3주년 기념 12시간 기도회

새 포도주의 시대,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하소서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이 3주년을 맞아 우두동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12월 15일(월)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12시간 기도회를 가졌다. 분단 70주년을 앞둔 시점에 쥬빌리(희년)를 선포하며 복음적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중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날은 함박눈이 춘천을 덮었는데 서울과 광주에서 먼 거리를 마다않고 오신 중보자들과 아름다운 연합으로 찬양과 중보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5개의 세션이 진행될 때마다 매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해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새 날을 열어가는 길목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예수전도단의 찬양인도와 조은제선교사(베드로선교센터)의 사회로 기도회가 진행되었는데 김수복목사(통일광장 기도회대표)는 누가22:14-23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으며, 잔과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셨다. 잠시 후면 고난 받고 죽음을 당하실 텐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신 것이다. 우리도 사명을 붙들고 주님 가신 길을 가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이 많을수록 십자가를 감사하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자."고 선포하였고, 북한성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성찬식을 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영두목사(서울샬롬교회)의 찬양인도와 오성훈목사(PN4N 대표)의 사회로 기도회가 진행되었는데, 김영식목사(남서울은혜교회, 북한사역협의회 사무총장)는 마가2:22 말씀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의 역할은 기도의 전통유산을 남겼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것과 선교하려는 열정으로



선교한국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담아내지는 못했다. 분단 70년이라는 시간은 깊은 상처를 싸매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시간인 것 같다. 부흥의 용광로인 예수님 안에서 한국이 완전히 젖어야 통일이라는 새로운 사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동트기 전 새벽 미명과 같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하는 새 포도주의 시대와 같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통일 시대 사역은 새 부대와 같다. 새로운 사역이라 어려울 수 있으나 기대하고 흥분하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새 사명을 붙들고 더 기도에 집중하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 통일을 우리 손에서 완수하게 하실 것이다."선포하였고, 한국교회와 새로운 사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광주기도의집 찬양인도와 홍요셉목사(사랑의침례교회)의 사회로 기도회가 진행되었는데, 김철영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에스겔37:17 말씀으로 "독일통일은 성 니콜라이교회에서 열린 매주 월요일 기도회가 기초가 되었고, 동구권에 민주화 바람을 일으켰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우리 민족에도 이러한 역사를 주실 것이다. 북녘 땅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외면하지 말라 70년 가까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실 것이다. 통일비용을 걱정하지 말라. 통일은 나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는 사람이 북한선교의 길을 열며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였고, 이어 이 민족에 통일을 주시기를,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세선회찬양팀 3박자 찬양인도와 한창주목사(세선회, 탈북자)의 말씀선포로 "이 민족의 우상숭배 씨앗의 열매를 지금 북한이 먹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죄악을 반복한다면 다음세대가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복음의 정체성이며, 민족의 정체성이다.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은 한 민족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교회에게 주신 시험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끌어안아야 한다. 좋던 나쁘던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연합의 완성은 하늘나라인



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 이어 북한선교와 탈북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광주기도의집 찬양인도와 조영춘목사(예광교회)의 사회로 기도회가 진행되었는데, 김장곤목사(광주기도의집대표, 동서횡단중보연합 대표)는 말씀선포로 "도시마다 부르심이 있는데 춘천은 성시화, 쥬빌리, 평화의 도시로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선두주자이다. 좌우 상관없이 연합해서 모이고 모든 갈등을 끌어안고 넘을 수 있는 공동체가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본인은 광주의 부르심을 따라 남북화해를 위해 기도해왔는데, DMZ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민간인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11개 전방대에 동시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남한(SK), 북한(NK), 디아스포라 한국인(DK), 한국을 사랑하여 사역하는 사람들(LK)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DMZ이며, 동시에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독일통일에 감명깊은 것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 통일을 염치없어 기도 못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한번만 독일을 사용해 주소서 하며 기도했는데 통일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예루살렘과 연합되어야 이야기 될 수 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 됨과 연계된다. 통일을 이루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민족의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우리 도시와 민족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개인, 도시, 민족이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새 포도주의 시대,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취재 /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 통일기도모임 안내 ◈

- 춘천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월1회) – 1/12(월)저녁7시 주향교회
- 통일광장기도회(월1회) – 1/26(월)저녁8시 석사교 하천무대
- 통일기도모임(매주) – 화 오후4시 주향교회



작은 오케스트라가 문화와 하늘을 잇기 위해 날개 짓을 한다

러시아로 떠나던 날 나는 선교비를 마련하느라 건축 노동일로 지쳐있었다.

공항
작은 오케스트라가 문화와 하늘을 잇기 위해 날갯짓을 하고
난 텅 빈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다
나그네새처럼 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들의 길을 따라 하늘을 오르고
난 가라는 부름에 남은 커피 버리고 낯선 곳으로 전사처럼 기립하니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나는 그 하나님을 잇는 소리가 되고 빛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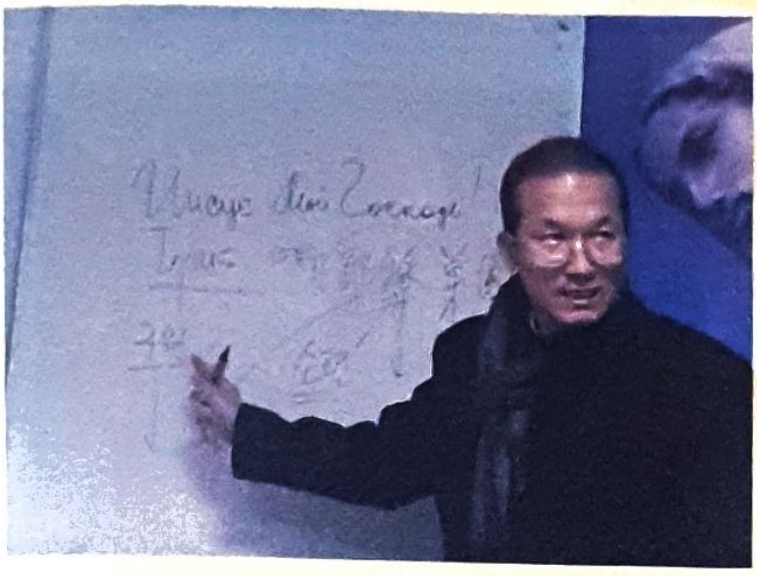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세계 인구의 40%, 그리고 아시아 인구의 55%가 사는 공산권이 붕괴한 것이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철옹성과 같이 굳게 닫혔던 공산권을 붕괴시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마 28:18-20) 이것 외에 다른 답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의 정식 명칭은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이며 공화국 21개, 주 49개, 변경 지역 6개, 자치주 1개, 자치구 10개, 수도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특별시 2개 등 총 89개의 연방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 1,709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나라이며, 지구 육지 면적의 7분의 1을 차지한다. 인구는 약 1억 3,808만 명(2012년 기준)으로, 150여 개의 크고 작은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다.

988년 러시아에 받아들여진 정교회는 1917년서부터 약 74년간 계속된 공산치하에서는 수난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고, 1918년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이 발포된 이래 성직자들의 숙청, 교회재산의 국유화등 탄압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련의 종교는 조지아 교회(Gorgian Church), 아르메니아 교회(Armenian Church), 우크라이나의 동방 가톨릭교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독일계 루터란 교회들이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핍박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우랄, 시베리아 등의 공업지대와 캅카스, 중앙아시아의 도시들에서는 침례교회가 러시아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러시아 개방 이후 기독교 선교 2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르바초프의 집권과 더불어 종교 활동이 완화되다가 1990년 10월부터는 개정된 종교법에 근거하여 미국, 유럽,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들어와 사역하는 중이다). 개방 초기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길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몰려 들어왔었다. 그러나 교회를 곧 떠나갔다. 요한복음 6장에서처럼 빵이냐? 생명의 빵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냐 사이에서 빵을 찾아 떠나갔는지,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서 떠났는지 나는 모른다. 또한, 러시아 선교를 하는 선교사도 후원하는 교회도 줄어들었다. 마태복음 10장의 주님 말씀처럼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지 않아서 먼지를 떨어 버렸는지 다른 이유에서 그랬는지, 누가복음 13장처럼 열매를 찾는 후원 교회가 성급했는지 선교사님들의 긍휼의 호소가 없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지금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개방 초기 모스크바 한인 선교사가 130가정 정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30가정 정도가 사역하고 있다. 러시아 선교 초기 10여 년간 교단별로 우후죽순처럼 신학교가 세워졌지만, 현재는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몇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규모가 있는 학교도 있다. 소망이 있는 것은 현지 신학교가 안정적으로 커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복음화가 활발하다는 것은 아니다.

작금의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의 종결, 러시아 경제의 회복, 그리고 사역에 관한 필요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금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이든 현지교회든 후원회든 할 것이 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



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빌 4:10-14)

이 말씀처럼 돌보는 것이 환기를 띠는 것이다.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배우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사는 삶이다. 칭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경제의 침체는 오히려 복음의 예비이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충성이 아직도 러시아 복음의 문은 열려 있음을 입증한다. 러시아 선교사님 중 한 분의 말을 들어본다.

"하나님께로부터 한 나라의 복음화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받고 위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교지에 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현지인 가운데 전혀 티도 나지 않는 작은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그 땅의 한구석에 거하는 자들이 선교사이다. 나는 선교사역자로서 갖는 가장 큰 고통이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러시아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우리 당대에 전 러시아와 구소련의 복음화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이다. 이 믿음의 결과는 비록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 주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나는 러시아를 다시 방문할 것이다. 끝

취재 / 이영규 기자
abba-father@hanmail.net

검은 대륙에 복음의 은혜를 나눠 주는 사람



아프리카 케냐 김경숙 선교사

아프리카 케냐의 김경숙 선교사(1946년생)는 강원도 양구태생이다. 1993년에 케냐에서 6년간 첫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고, 이후 중국에서 사역하다 2010년에 케냐선교사로 재파송 받아 사역중이다. 한국인이 전혀 없는 오지에서 복음의 은혜를 나눠 주는 김 선교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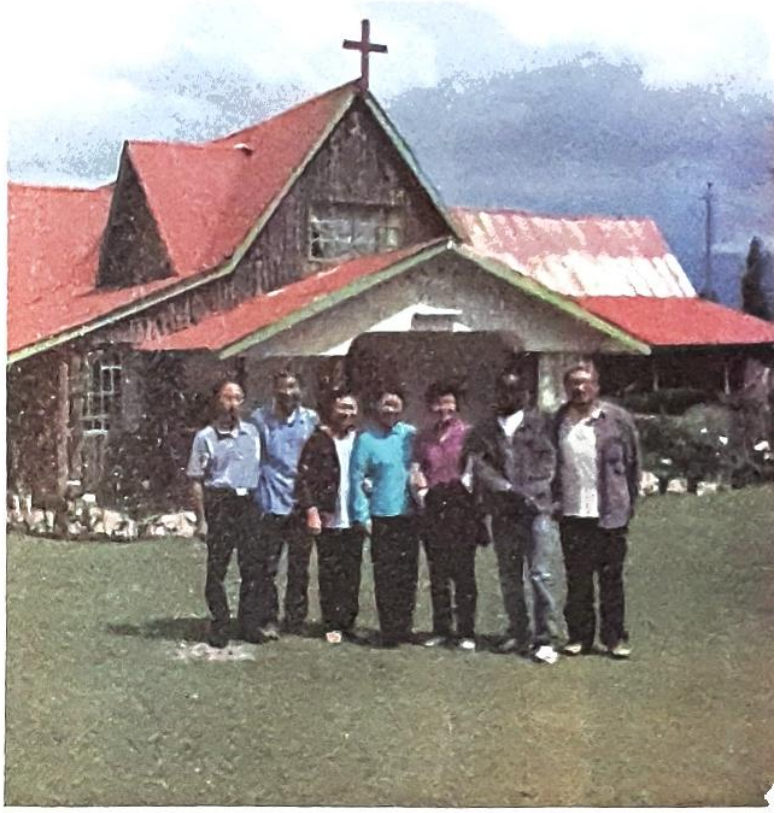
김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케냐선교사로 헌신하시기 전에 독일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때의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예. 저는 지난 1970년에 간호사로 독일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주님과 너무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란데

스 크랑켄 하우스 (Landes Kranken House)에서 공부하고, 현장에서 국립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크게 낙심하였고, 치료의 과정 또한 어려웠었습니다. 그 무렵 전도를 받고 UBF를 통해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교회 부흥회를 통해 상한 마음과 상한 몸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20여알씩 먹었던 약도 다 버릴 정도로 회복되었고, 그 일로 결국 선교에 대한 비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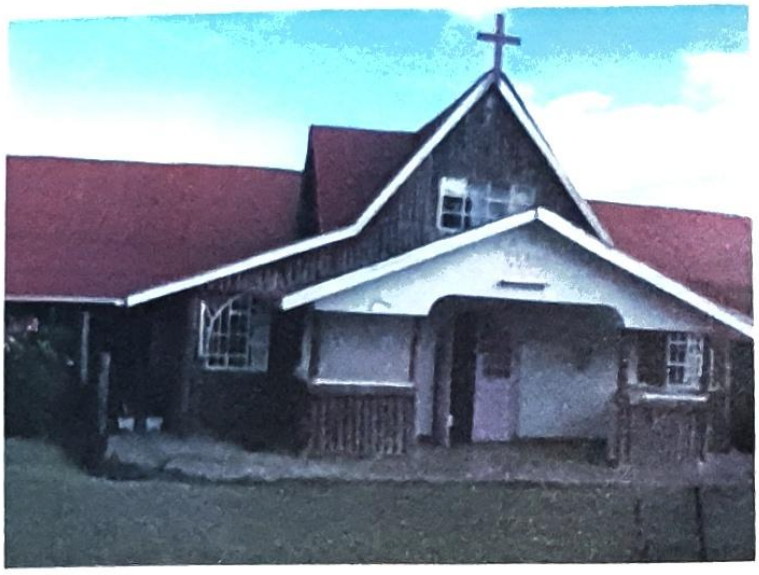
그 후에 신학교를 가시게 된 계기와 아프리카 케냐선교사로 가시게 되는 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셨는지요.

제가 독일에서 체류한 기간은 17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간을 간호사로 지냈지요. 남은 인생을 간호사로 사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직장의 간호사들과 특히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면 대부분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썼습니다. 불신자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침대에서 자지 않고 눈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잠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1년 안에 한국에 있는 가족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온전히 복음전하는 자로 헌신



하겠다는 강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미국 캘리포니아 「크리스천 라이프 칼리지」(Christian Life College)에서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소명은 처음에는 단순한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TV를 보다가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첫 단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번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1993년 10월에 겁 없이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사이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마사이족은 대단히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용사의 기질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사역을 하다가 남편 목사님









의 비전을 따라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과정가운데 남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남편의 남은 사역을 이어가다가 다시 선교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지 선택을 위해 만나게 해주신 분이 임은미 선교사이십니다(참고로 임은미 선교사는 '케냐의 오프라 윈프리'로 통한다. 임 선교사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21년째 제자 양육과 어린이 사역, 방송사역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양을 통해 얻은 자녀까지 10명의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드라마 같은 삶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금은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사역 적으로 임 선교사님과 깊이 연결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993년부터 케냐 1차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사역 2기에 해당이 되실 텐데, 현재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지요.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첫 사역지와는 다른 키낭고프(Kinangop. Province)라는 지역에

있는 킨자(Kinja)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열대 아프리카와는 달리 이곳은 매우 추운 지역입니다. 3천미터가 넘는 고산지형에다가 날씨가 영하로도 내려가고, 거의 365일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추위 때문에 견디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저의 주된 사역은 기도원사역입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바꾸는 데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운영하며, 하루 두 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모아 한국식 기도운동과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신학연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현지인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병원사역도 같이 진행하다가 마을 보건소가 유치되는 바람에 현재는 기도원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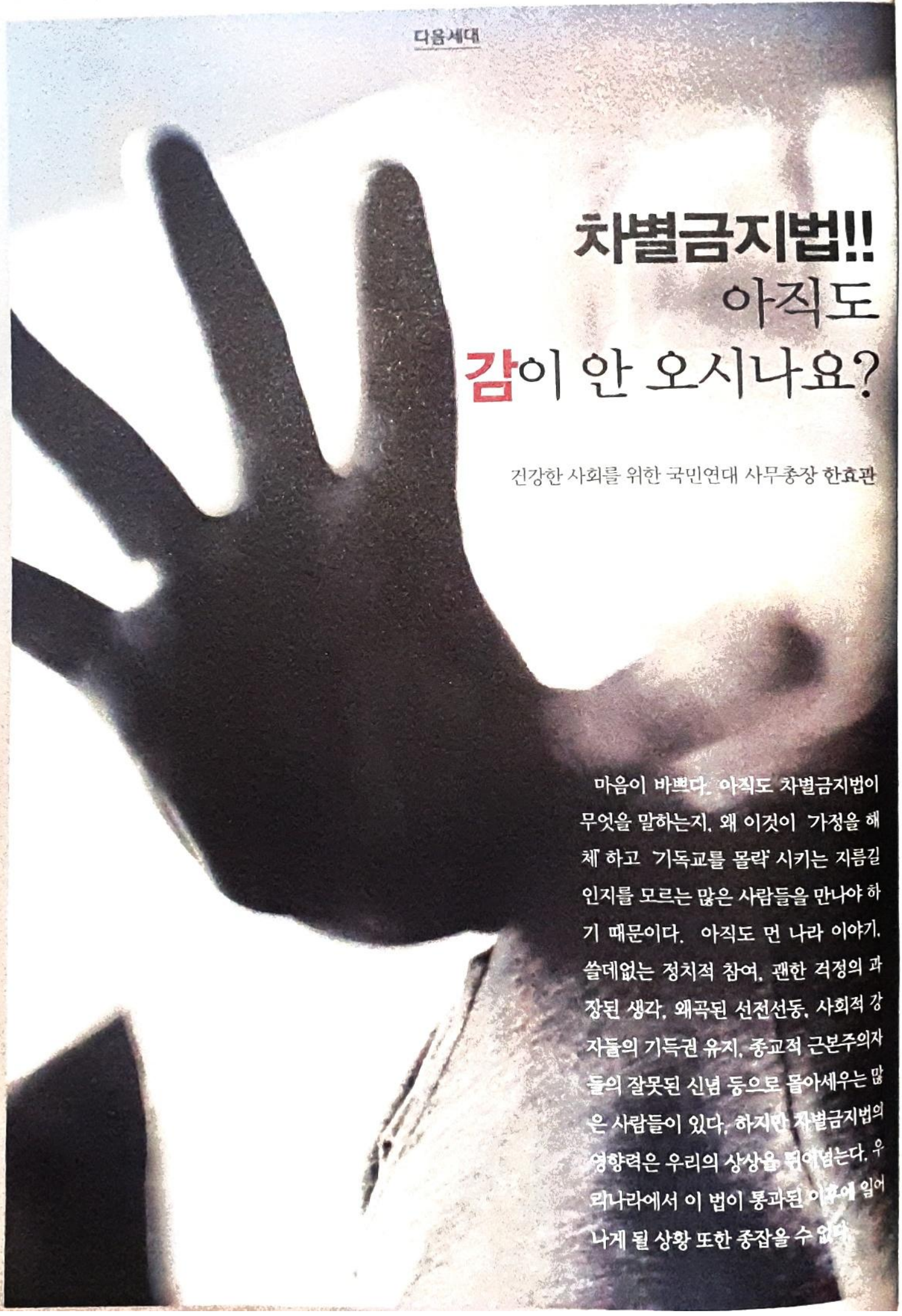
끝으로, 사역이나 개인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는, 저의 신앙의 신조로서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4시 10분전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과 1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큐티(QT)를 글로 적고, 기도원 스케줄에 맞추어 6시에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4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20장 이상 읽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원 사역과 함께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곳 청년들은 대부분 직업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 마약을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 누워있거나 좀 도둑질이 일상이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케냐는 커피로 유명한데,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직업을 나눠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원사역, 학교사역을 통해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케냐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는 김경숙 선교사. 치안이 불안하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곳이기에 이미 유서까지 다 써 놓았다고 한다. 수시로 요한계시록 21,22장을 읽으며,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김 선교사. 지역에서 피부색이 다른 유일한 한국인이기에 동물원 원숭이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사역이 너무 많아 외로울 시간마저 없다는 김 선교사의 고백에 가슴 뭉클함이 전해온다.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차별금지법!!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사무총장 한효관

마음이 바쁘다.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이것이 가정을 해체 하고 기독교를 몰락 시키는 지름길인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 쓸데없는 정치적 참여, 괜한 걱정의 과장된 생각, 왜곡된 선전선동, 사회적 강자들의 기득권 유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잘못된 신념 등으로 몰아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상황 또한 종잡을 수 없다.

우선, 필자가 최근에 영국에서 온 한 교포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심각성과 긴박성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 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그 회사의 경영진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 문구를 넣은 케 팔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다.

▶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 했는데, 크리스찬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이다.

▶ 어떤 병원에서 동료 동성애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하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였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 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이다.

▶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했다.

▶ 입양한 지 6개월이 안 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시 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 갔다.

▶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 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원 (£ 47,000) 상당의 벌금을 부과 한 일도 있다.

▶ 고용주가 함께 일해 온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또 복음을 전하면 고소할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

놀라운 것은 가만히 있어 자신의 양심과 신념만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간호사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생각과 신념을 검증하여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평등법을 적용하는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의 인권법, 미국의 인권법을 근간으로 한 혐오(증오)방지법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한국에는 아직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제정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한다. 그 법을 필두로 '언론보도준칙', '지자체인권조례', '지자체인권헌장',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법률들이 속속 입법되고 집행되고 있다. 노골적인 '차별금지법' 을 제정하기

에는 무리가 있었는지 우회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이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사례들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3월초 "도심에서 마약 파티한 동성애자 무더기 입건" 이란 보도자료를 낸 서울J경찰서 담당자는 '동성애자' 용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야당의 J의원에게 질책을 받은 것은 물론 사과문을 보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 지난 4월초 국내 저명한 M의사와 L변호사가 K-tv(국정티브이)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성결혼이 헌법에 위배되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야당 B국회의원은 문체부 장관을 국회에 불러 세워 잘못을 추궁하였고 장관은 사과하고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삭제되었다.

▶ 미션스쿨인 서울 J여고, Y여고, S고교의 교목 등이 최근 3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거나 압박을 받았다. 이단들은 이들 교목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학생인권조례 16조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했다. [국민일보 8월1일자]

▶ "C고 B교장은 부임 직후인 지난해9월, 10년 동안 이어져 온 학생기도 모임 '카리스'를 폐지하고, 교내 동아리들이 지난해 12월 24일 개최한 '크리스마스 음악축제' 포스터에서 종교색채를 띤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단어의 삭제를 지시해 ~"(국민일보 12년 12월 25일자)

▶ '성적 소수자는 정상이다.'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성적소수자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성적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동성애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이 아니다' (K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p91~93)

한편,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한계 중 하나가 '처벌조항' 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조항을 삽입하여 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 새로이 만드는 차별금지법의 큰 이유가 되는 것이다.

민·형사상 처벌조항이 없는 차별금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의 상황에서도 이러할진대 처벌조항이 핵심인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의 행보는 얼마나 극단적으로 향할 것인가?



아벨의 죽음 유병우교수(모방화전)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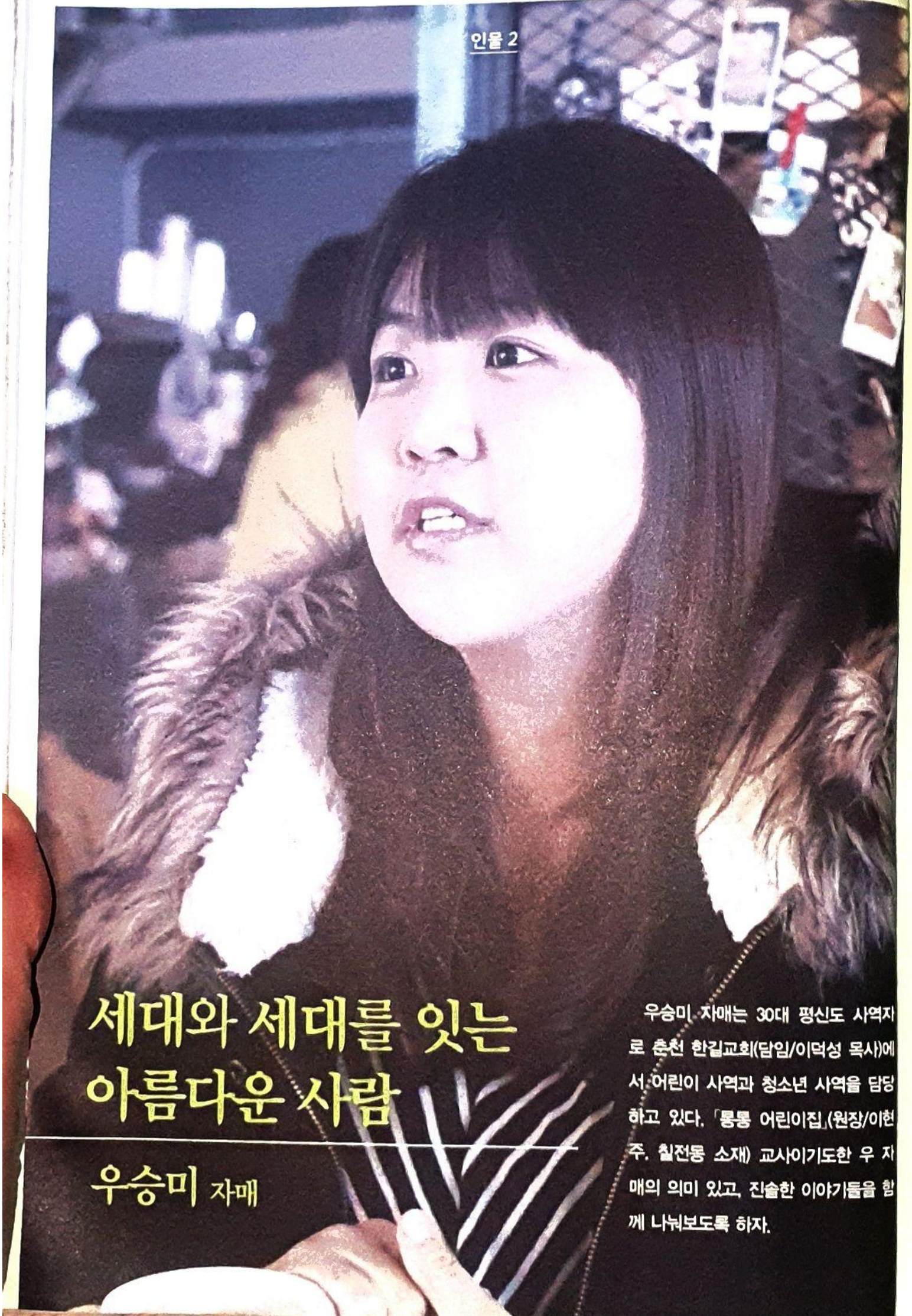
지난 12월호에 소개된바 있는 유병우교수 모방화전 중 한 작품이다.

(아래글은 춘천 YMCA 갤러리 '오르'에서 전시중 작품해설을 위해 게시 되었던 글을 그대로 옮겨보았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동생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좋아 보였을 뿐인데.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까닭 모를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고 이것으로 세상에 죽음이 퍼지게 됐다.

동생의 시체가 발 밑에서 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닌다. 이 모든 일이 변덕스럽게 일어났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벌어지리라. 나 때문에 어른과 아이들이 죽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사람

우승미 자매

우승미 자매는 30대 평신도 사역자로 춘천 한길교회(담임/이덕성 목사)에서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뭉뭉 어린이집」(원장/이현주, 칠전동 소재) 교사이기도한 우 자매의 의미 있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자.

반갑습니다. 우 자매님. 연말연시라 아이들 지도하랴 교회공동체를 섬기랴 사역이 많이 바쁘지요. 지금의 일터인 「통통어린이집」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던데, 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느라 조금은 더 바쁜 편입니다. 하지만 워낙 아이들과 지내는 일들이 즐거워서 별로 힘든 것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통통 어린이집」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한겨레신문」 등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행복한 「춘천시민보육협동조합」 성격의 어린이집입니다. 설립자 이현주 원장님의 철학이 깊이 묻어 있는 이곳은 운영주체가 어느 한 쪽만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조합원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대표, 원장, 이사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고,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긴밀한 확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통 어린이집」은 다른 어떤 보육시설보다 아이들의 놀이문화와 먹거리 문화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효자동시절부터 어린이집 마당은 모래 놀이를 할 수 있게 꾸몄고, 텃밭에서는 무가 자랐습니다. 어린이집 현관에는 겨울 내내 시래깃국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무청을 매달아 말리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을 친환경적으로 기르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에게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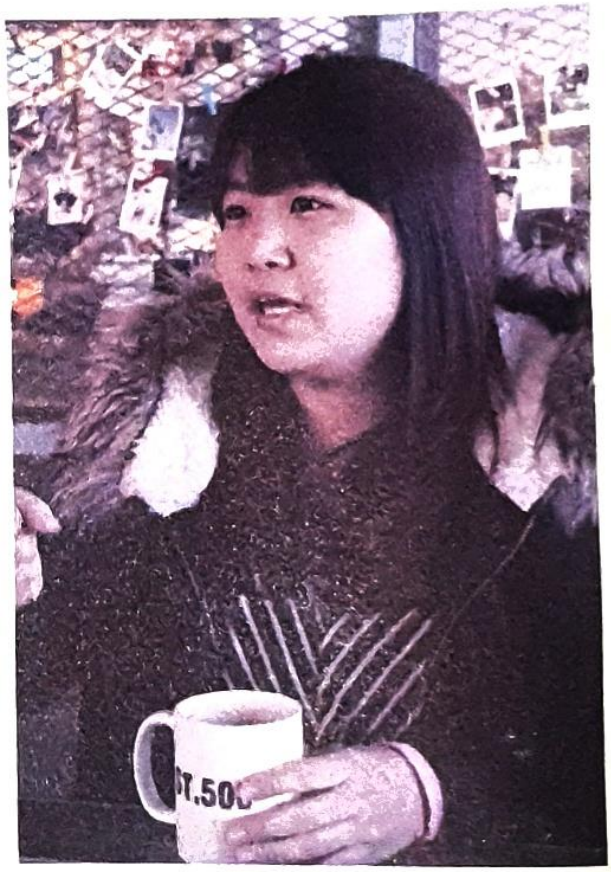


전혀 먹이지 않고, 다시다 같은 조미료도 쓰지 않습니다. 식재료는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은 이곳 칠전동으로 3-4년 전에 이전을 하였고, 꽃반, 해반, 솜반 등 3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선생님들의 이름 대신 "솜사탕 선생님"(담임 이현주 원장), "해바라기 선생님"(담임 우이나 선생) "꽃사슴 선생님"(담임 우승미 선생)으로 불립니다.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맡은 사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교사를 담당하고 있고,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고등부니 어린이주일학





교니 하는 조직을 떠나서 연결된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중고등부에 속하면서 거의 자동적으로 어린이 주일학교 보조교사 직을 맡게 됩니다. 그 후 성숙도에 따라서 정식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청년까지도 연결된 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나만 즐겁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즐거운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합니다. 나눔을 강조하고 책임도 강조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자 아이들도 잘 받아들여서 자기도 배우고, 점점 커서 다시 아랫세대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이클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젊은 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목사님과 중직자들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 주고 계십니다. 찬양이 활성화되어있고, 마지막 주 예배는 "파워 웨이브 워십"으로 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특별 순서를 진행합니다. 수시로 성경퀴즈대회를 하고, 한길 아시안게임, 영화관람, 추적게임, 런닝맨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전도활동에도 많은 힘을 쓰는 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비롯한 교사들이 교문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풍선, 어묵 등을 나눠주며 전도했습니다. 주로 호반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주5일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구령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직장인들이 금요일 저녁까지 일을 하고, 초등학생들은 반대로 금요일 오후에 하교를 하기 때문에 전도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주일학교 학생들의 수가 예전만 못한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직접 전도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 중고등부를 이



루고 청년이 되어 교회의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매우 흡족합니다. 얼마 전「성탄축하의 밤」행사에도 아이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율동과 성극, 찬양으로 섬겼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동생 우이나 자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셔서 저와 협력하게 하시는데, 동생의 많은 헌신에 존경의 마음이 우러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꿈과 계획이 있으신지 나눠주시지요.

저의 꿈은 이곳 아름다운 한길교회와 함께 합니다. 저는 14살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와 관련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24살 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길교회로 돌아왔고, 지금 만 10년을 사역하여 34살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크게 10년 주기로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은사는 아무래도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역' 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랫세대와 윗세대는 적지 않은데 이른바 허리에 해당되는 중간 세대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어린이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키워 교회의 일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평생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환갑잔치를 한길교회에서 하고, 이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봉사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명성훈목사 (성시교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성시화는 영향력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 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스가랴8:23)

성시화운동은 3전(全) 운동으로 전(全)교회가 전(全)복음을 전(全)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단순한 전도나 교회 성장보다 더 차원이 높은 총체적인 복음운동이다. 전 사회의 총제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운동이기에 단순한 변화(Change)가 아니라 전(全)사회의 총제적인 변혁(Transformation of whole)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운동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Already) 시작되었지만 아직(Not yet)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와 '아직' 의 긴장 속에 살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다.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몰아낸다.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소금과 빛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의미한다. 세상은 경쟁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세계 7위에 올랐다. 그러나 경쟁력보다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경쟁력은 약해도 영향력은 클 수 있으며, 반대로 경쟁력은 강해도 영향력은 약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가 몇 개나 있지만 규모나 경쟁력에 비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 도리어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작지만 영향력이 큰 교회가 절실한 시대이다.

슥8:23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10명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영향력이다.

최고의 영향력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6,17) 세상에서 최고의 변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천국의 영생은

인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시화 운동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영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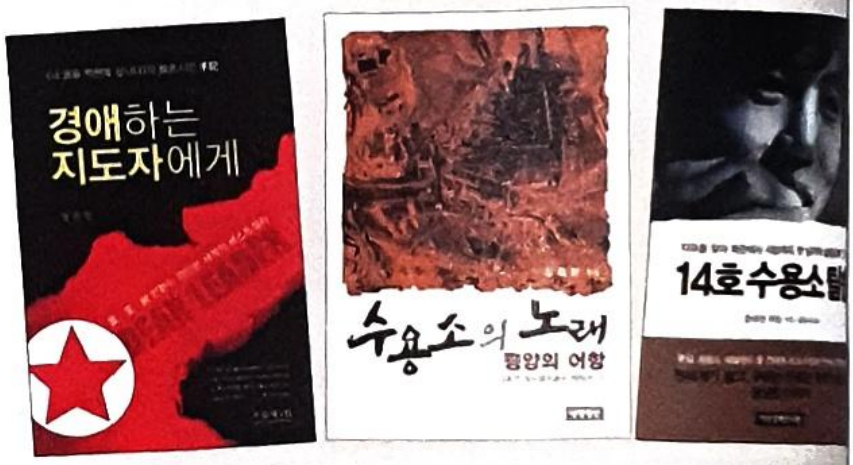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해야 한다. 전도운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다. 바울 사도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고전2:4)라고 고백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4:6),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하였다.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향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중심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며, 복음을 전하되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성령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리더십의 영향력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 그런데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이 모든 것이다(Leadership is everything)란 말이 있다. 즉 만사가 리더십에 달려 있다. 리더십을 통해 모든 일이 일어난다. 리더십의 영향력이 최고의 영향력이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빌2:13~16). 문제가 많은 인생을 불러서 문제가 많은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신다. 교회 직분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세우기 원하신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군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 성시화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군이요 리더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자리다툼하지 않고 세워진 자리에게 충성된 모습을 갖고 일하는 리더들이 세워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드러내는 성시화 운동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취재 /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 이 설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회 때 한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탈북작가 장진성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문화의 설득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다

"영국 정치인들이나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난 뒤, 대북 문제에서 정치보다 문화의 설득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북한은 정치적 이해와 접근이 불가능한 체제이다 ..... 金氏왕조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비정상적 정권인데도 외부의 시각과 판단으로 '정상적 외교'를 하려고만 하니 '항상 속는 교류' 인데도 최선이라고 보는 것이다 ..... 세계의 대북 인식을 바꾸자면 더는 정치에 맡기지 말고 여론의 힘을 키울 문화의 설득이 필요했다....."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라는 시로 유명한 장진성 작가가 탈북수기,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의 서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책은 2014년 9월 19일 출판되었는데, 사실 그에 앞서 2014년 5월 영국의 「랜덤하우스」에서 'Dear Leader' 라는 제목으로 영어판이 출간되어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CNN의 간판 아나운서 크리스티안 아만포 뉴스쇼에서도 장진성 작가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전 세계 영어권 국가 전체 도서 판매 10위,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 아시아 정치 분야 10위, 체코 · 러시아 · 폴란드 등 12개 국어로 번역 결정되는 등 단숨에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단순한 수기로서 뿐만 아니라 그 섬세하고 수준 높은 문학성이 또한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한다.

이 책은 그의 탈북에서 한국 입국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배고파 죽을 각오, 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중국으로 나온다는 탈북민들의 현실을 그도 고스란히 경험하였지만, 벌써 25000명에 달하는 다른 탈북자들의 고난에 비하면, 두만강을 건넌지 35일 만에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들어간 자신은 그저 배낭여행을 한 정도였다고 술회한다.

이 책은 분노와 연민 때로는 유머를 가지고 자

신 뿐 아니라 독재자, 그리고 거대한 감옥이 되어 버린 북한 사회를 설명하고 또 해석하고 있다.

북한의 실정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제 전 세계는 '북한의 인권'이라는 이슈로 들끓고 있으며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도 통과되었지만, 북한백성들의 고통을 향한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의 배경에 같은 한민족이며 이웃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이 아쉽다.

일본에서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교포의 손자로서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강철환 씨가 '민족반역죄'로 온 가족이 요덕수용소에 끌려가서 살았던 체험을, 프랑스 작가가 인터뷰하여 쓴 '평양의 수족관'이 2003년 출간되어 전 세계를 울렸고 2005년에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그 책을 읽고 강철환씨를 초청하여 40분간 면담한 일이 있다.

2012년에는 14호 (개천)수용소에서 표창감혼으로 태어나 자란 신동혁씨를 워싱턴 포스트 기자 블레인 하든이 3년간 인터뷰하여 쓴 '14호 수용소'라는 책이 나왔다. 그 책은 단기간에 미주 뿐 아니라 유럽까지 10여개 국어로 번역되어 모두에게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신동혁씨는 2013년 6월 6일 국제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이 '정치범 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세상 밖으로 나오다' 있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500권 밖에 팔리지 않고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다. 한국어판 '14호 수용소 탈출'은 2013년 3월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왔다. 독일에서 2012년에 만든 '신동혁 다큐멘터리'가 이번 12월에는 한국 극장에서도 개봉된다고 한다.

2012년에는 미국 스탠포드대학 영문학 교수 애덤 존슨이 '고아원 원장의 아들'이란 소설을 써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세계 29개국에서 출간되었고 2013년에는 퓰리처상 소설 부문을 수상하였다. 그는 2004년 강철환씨의 자서전 '평양의 수족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탈북자들 면담, 6년간 북한 노동신문 정독, 북한 방문 등 준비기간을 거쳐 소설을 썼다. 몸은 존재하되 '자아'가 없는 이들, 국가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스스로 삶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그러나 외부세계를 접하고 수용소를 거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유를 향한 욕망을 갖게 되며 인간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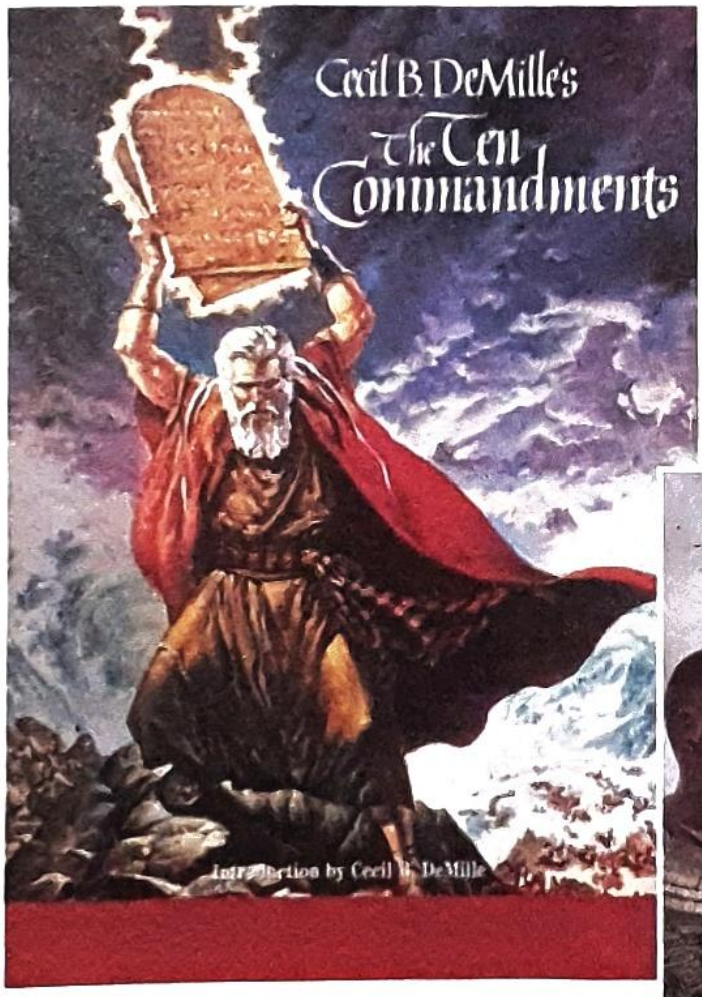
애덤 존슨은 말한다. "이제는 다양한 국가의 더 많은 사람이 북한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다. 북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고 북한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배경에 이러한 책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 춘천 크리스찬들도 더욱 많은 분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북한백성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임박한 통일시대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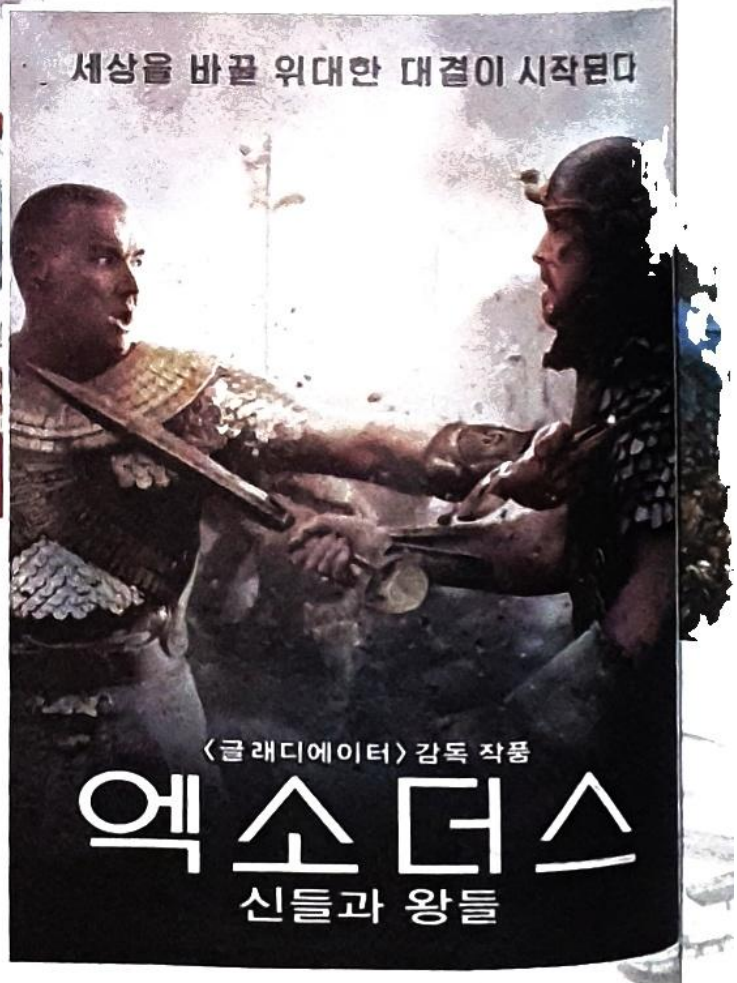
기정희 선교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춘천의료원 신경정신과장 및 진료부장 역임

십계와 엑소더스

이번엔 그토록 기다려왔던 거장 리들리 스콧의 〈엑소더스〉를 소개하며 권하는 글이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로 인해 올 한해 헐리우드에서 만든 기독교 영화의 실태에 대한 우려되는 분석과 전망, 분별과 경고를 논하게 되었다.



〈십계〉,〈벤허〉 등 역대 명화에서 받은 은혜를 현대영화의 첨단기술과 커다란 자본으로 새롭게 더욱 강하게 체험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올초 기독교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 나올 것이란 보도에 잔뜩 품은 기대는 대런 아르노프스키의 〈노아〉에서 시작된 우려가 사실 더욱 심



화되어가는 현상이었던 것이니 성경말씀에 기록된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온전히' 재현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부질없는 문명의 오만이었는지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겠다. 기술과 자본의 급속한 발달과 증대로 인하여 영화기술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비주얼로 발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얼마나 성경적

인 마인드로 충실히 만드느냐에 따라 기존의 감동도 달라지는 것이다.

〈에일리언〉 시리즈로 SF거장의 반열에 오른 스콧 감독은 〈글레디에이터〉로 영화적 감동을 벅차게 안겨주면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한 후 작년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로 SF영화의 스케일을 키우기는 했다. 헌데 그 영화에서 인류의 기원을 괴물 같은 에일리언으로 설정하는 매우 우려스런 일을 저질렀는데 모처럼 성경 내용을 옮기는 이번 작품에 솔직히 설마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종교다원주의, 프리메이슨 등 다양한 이단적 풍조에 찌든 감독의 마인드를 보여준 것이다. 현대 문명에 무서운 기세로 파고드는 사단의 궤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필자는 아이맥스에 3D가 추가된 영상으로는 처음이며 지금까지 본 영화중 최고액의 관람료까지 내고 봤는데 실로 아까운 생각이 슬며시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세실.B.드밀의 〈십계〉가 기술적으로 조금 뒤지더라도 영적 감동이 오히려 더욱 은혜롭고 여운이 길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바다가 좌우로 순식간에 갈라지는 기존의 영상이 아니라 여기서는 출애굽기 14장에 묘사된 대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이적에 60여 만 명의 히브리 노예가 건너는 장면을 '과학적'인 설득으로 보여주려 하였으나 도리어 그 감동이 반감케 되는 요소가 되었으며, 고대 이집트의 석조와 건물 등 고증에 충실하면서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엄청난 규모의 엑스트라로 스펙타클 영화로서의 위용을 유감없이 뽐내기는 하였으나 〈벤허〉와 같은 여운이 긴 은혜가 느껴지지 않은 점이 그렇다. 첨단기술과 거대자본으로 이룰 수 없는 영적 한계를 보는 것 같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에서 보다 깊고 신비로운 장면으로 연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세트까지는 좋은데 여호와의 모습을 인간적 모습으로 나타내려 한 것 또한 패착이다. 영화 내내 여호와와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호칭하며 부제로 '신들과 왕들'이라 붙인 것부터가 감독의 온전치 못한 성경관을 내 비치지 않던가.

필자는 이 영화를 권면하기 보다는 〈십계〉와 비교해서 보기를 바라며 메이저 영화사에서 그런 첨단의 기술과 커다란 자본으로 보다 더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대 더욱 분별 있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의 작가가 많이 나오길 기도해마지 않는다. 끝

글 / 김춘배 기자
beller@hanmail.net

밥 맛 좋은 성도가 되자!

필자는 1년 365일 중 300일 이상 외식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참 많다. 하지만 모두 좋은 사람들과 만남은 아니다.

식사 도중 코를 크게 풀거나 몸을 여기저기 긁적긁적 긁거나 침이 튀길 정도로 큰소리로 말하거나 식당 종업원들을 마치 하인 부리듯 하는 사람 등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난다. 그 중에 최악인 경우는 상차림 음식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다가 내려놓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먹을 물김치 등을 수저도 아닌 입으로 벌컥 마시고 내려놓으면 그날은 모든 음식을 포기하고 밥만 먹고 싶은 심정이 된다. 이같이 밥맛 떨어지는 사람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정말이지 고통이다.

그래서 필자는 빈말이라도 '다음에도 밥 한 끼 먹지요' 라는 말을 절대 안 한다. (필자의 집 상차림 중 찌개는 물론 물김치도 각자 작은 그릇에 덜어 먹는다. 공용음식을 두고 우리 민족 특유의 정을 나누는 상차림이라 하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다. 유교를 중요시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가정에서는 물론 잔칫날에도 손님들 하나씩 독상을 받아서 먹었다. 상차림은 전부 독상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공용음식을 차려먹는 풍습이 생긴 것이다. 그러기에 공용음식을 엄격히 말하면 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침을 나누는 것이다. 상견례를 할 때 한정식이 아닌 양식이나 일식집에서 하는 것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배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은 곧 예배가 밥이란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함께 맛있는 밥을 먹는 시간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밥 먹는 시간에 밥맛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이다. 사슴이 시냇가를 그리워하듯이 주일 예배시간을 기다려야만 함에도, 이 밥맛없는 사람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가서 반가운 양 인사를 해도 속마음은 불편해서 부담될 때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제일 밥맛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창출하려는 사람,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밥맛 떨어지는 사람도 하나님 아래에 피붙이 같은 가족공동체 일원이라 생각하고 밥맛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맛있는 밥 한 끼도 먼저 대접해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럼, 교회 내에서 밥맛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사랑과 칭찬과 감사로 충만한 사람일 것이다.

2015년 새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밥맛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도록 노력해보자. 그 이후에 밥 한 끼 같이 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이것이 제일 밥맛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일 것이다.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만평



우리는 매일 아침
86,400원(86,400초)을
선물 받습니다.
남기지 말고
값진 일에 전부 써버리세요.

그림 / 이관형 기자

예향

어디로 가는가?

글 / 최상도 기자

서정오 목사의 「목마른 인생」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리던 손님이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기사양반, 아까 내가 어디가자고 했지요?"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면서 말한다. "아니, 손님! 언제 거기 타셨습니까?" 현대사회가 바쁘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1983년,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출발한 대한한공 007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 전투기에 맞아 추락하기까지, 승무원과 승객들 중에서 가고 있는 항로를 의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가족들과 마중 나온 사람들이 김포공항에서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가족들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분주하게만 보내기 쉬운 연말연시. 나는 무엇을 얻었고, 새 해에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자. 우리 주님과 바울은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Herpes simplex

단순포진의 비밀

어린 시절 입술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작은 물집(수포)과 함께 염증이 생기면 어머니는 입술이 커지려고 그런다며 걱정하지 말라셨다. 어머니 말처럼 1,2주 후면 물집과 염증은 다 사라지고 입술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 질환이 단순포진이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단순포진은 바이러스(Herpes simplex)성 질환이다. 이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한 번 전염되면 사람의 신경절에 평생 상주하면서 특정한 자극이 오면 피부로 나와서 질병을 일으킨다. 보통은 피로가 아주 심할 때, 또는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단순포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열성질환, 일광, 정신적 긴장, 월경 같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에는 1형(type 1)과 2형(type 2)이 있다. 이중 1형은 우리가 흔히 보는 입술 주변의 질환을 일으키지만, 2형은 주로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 되므로 음부포진, 혹은 성기포진이라 하며 성병으로 분류한다. 그렇다고 모든 음부포진이 2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음부포진의 90%는 2형이었고, 10%는 1형이었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성생활로 인해서 음부포진의 50% 정도까지도 1형이라고 한다.

음부포진은 성기부위에 궤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질환이다. 성적으로 왕성한 젊은 성인에서 호발 하는데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기간 동안 전파되며 병변이 있을 때는 거의 모든 경우(95%)

감염된다. 물론 음부포진은 엉덩이 주변에 발생하기도 하며, 궤양 없이 물집만 생기기도 한다. 최근에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입술과 입술 주변에도 많이 발생한다.

임산부가 음부포진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 혹은 신생아 단순포진을 조심해야 한다. 임신기간 동안 산모의 성기부위에 단순포진이 처음 발생할 경우에는 태아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두증, 소안구증, 뇌염, 맥락 망막염 등의 기형이 발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아 감염은 유산이나 사산 및 조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생아 단순포진은 분만시 아기가 산도의 분비물에 접촉하면 걸리게 되는데, 이 경우 70% 정도에서 중추신경계 감염이 발생하고 사망률은 65% 정도에 달하므로 아주 무서운 질환이다. 따라서 임산부가 음부포진(1형 혹은 2형)이 발생하면 꼭 제왕절개수술을 통해서 분만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분만 전 의료진에게 음부포진 여부를 솔직하게 알려줘야 한다.

입술에 단순포진이 발생하면 흔히 바르는 연고(acyclovir 성분)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연고를 발라도 병변이 빨리 호전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 보통 단순포진은 1,2주 정도 지속되는데, 바르는 연고는 하루 정도 빨리 낫게 해준다. 이에 비해 경구약은 유병 기간을 반절 정도로 줄여 주므로 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구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형과 2형은 약을 복용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치료 하는데 요즘은 발생하는 위치로 1형과 2형을 구분하기 힘들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약을 처방 한다.

단순포진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가지고 가는 병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지나친 스킨쉽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년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쁘다며 안아주고 뽀뽀하는 모습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장면이다. 아이들을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엄마의 몫이고 어른의 역할이다.

*193호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글쓴이를 이종성기자(사랑정신건강의학과원장)로 정정합니다.

글 / 고석연 원장 (고석연가정의학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



2014년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가 12월5일(금) 오전11시 온누리교회(김창환목사)에서 있었다. 1부 개회예배는 이병철사무총장(주향교회)의 사회로 신성균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기도, 2014년 대표회장 원종국목사(제일감리교회)의 딤전1:12~17 본문으로 "나를 충성되어 여겨"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부이사장 김창환목사(온누리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지용찬본부장(은혜장로교회)의 사회로 황병호장로(홀리클럽 수석부회장)의 기도, 정재호감사(늘사랑교회)의 감사보고, 이병철사무총장의 사업보고, 회계보고가 있었고, 2015년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안건토의로 진행되었다. 2015년 임원은 본 매거진의 성시화에서 소개된다.

2014 리더십 써밋

12월 8일(월) 오전10시~오후3:00까지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는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주최한 글로벌 리더십 써밋이 있었다.



교회의 사역과 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진 컨퍼런스로 영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빌 하이벨스(윌로우크릭교회 담임목사), 이반 사타브라타(캘커타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앨런 캐서린 카지나(잠비아 국세청장)등 글로벌 리더들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되었다.

영적성숙 세미나



12월8일(월)부터 10일(수)까지 예수전도단이 주최한 영적성숙세미나가 주향교회에서 저녁 7시에 있었다. 세미나 강사는 천태석목사(예수전도단 포항 지부장)로 3일간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영적 지경을 넓혀가라고 말씀을 전했다.

홀리클럽 총회



2014년도 홀리클럽 정기총회가 12월9일(화) 오후5시 베어스호텔에서 있었다. 애찬과 친교 후에 1부 예배는 수석부회장 황병호장로의 사회로 부회장 임운식장로의 기도, 김창환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의 "은혜입은 방주가 되라"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고, 김창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총회에서는 2014년 회장 김용배장로의 사회로 한순수장로(자문위원)의 기도와 2014년도 감사보고, 사업과 회계보고, 임원선출,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후에 춘천성시화와 홀리클럽을 위해 합심기도 후에 마쳤다. 2015년 임원은 본 매거진에서 소개된다.

PSP 331기 수료

2014년 12월 11일 PSP(Perspectives Study Program) 331기 춘천 목요반 수료식이 있었다. 12주간의 과정으로 28명이 수료하였다. 선교에 대한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의 강의를 통해 선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 워크샵



2015년도 춘천기독교연합회 신임임원의 워크샵이 12월 11일(목) 저녁7시 무지개교회에서 있었다. 지용찬회장(은혜장로교회)의 말씀선포와 함께 2015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1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 성탄회복 축제와 전도대회

12월 21일(주일)부터 23일(화)까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기독교연합회의 주관, 예수전도단이 주최하여 지역교회들과 함께 진행한 성탄회복 축제와 전도대회가 성탄을 맞아 춘천 도심에서 있었다. 21일(주일) 오후5시에



는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CBS 정예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캐롤과 중창, 독창, 드라마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찬양 축제가 있었다. 이 후에 쿠키와 붕어빵을 선물로 나누며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전하는 전도축제가 3일간 계속되었는데, 명동과 공지천, 강대후문, 춘천CGV, 퇴계동, 강북MS마트등 춘천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한일 동시각 찬양집회



12월 25일(목) 오후3시에는 춘천역 광장에서 한 · 일 동시각 찬양집회가 있었다. 이 찬양집회는 서울과 일본, 춘천에서 동시각에 열리는 찬양집회로 한 · 일간 묶음들을 풀고,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주 오실 길을 예비하자는 의미에서 매년 광복절과 성탄절을 맞아 집회를 갖고 있다.

2014 어린이 찬양축제



12월 27(토) 오후2시에는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에서 2014 어린이 찬양축제가 있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가 주최한 이번 찬양축제에는 어린이들,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찬양과 레크리에이션, 복화술공연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지며, 다음세대들이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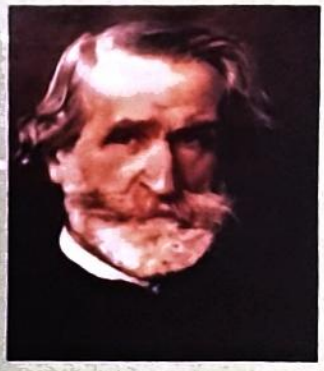
통일광장기도회



통일광장기도회가 12월 29일 저녁8시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있었다. 추운날씨이지만 더 추운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를 생각하며 중보자들이 모였고, 이 민족에 복음적 통일을 주시기를 간구하였으며, 나라와 춘천과 다음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취재,사진 / 춘천성시매거진 편집부

쥬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 : 1813-1901)의 오페라 나부코 <NABUCCO>,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 VA, PENSIERO 제3막 2장에서: 가거라, 내 상념이여! >



이탈리아 낭만파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의 초기 작품이며, 오페라의 거장으로 위대한 출발을 가져다 준 작품이다. 우리나라의 오페라 팬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곡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유대왕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가난하지만 음악적인 재능을 알고 후원해주었던 아버지의 친구 바레찌의 딸 마르게리따와 결혼하였으나 스칼라 극장에서의 공연작실패와 함께 아내와 자녀를 잃고 상심해서 음악을 포기하고자 했던 밀라노에서 극장 지배인 메렐리의 권유로 당시 작가 솔레라의 〈나부코〉 대본을 만나게 되었다. 그 이듬해에 태어나게 된 위대한 오페라는 1842년 3월 9일, 라스칼라좌에서 초연되어, 67회 연속 공연이라는 경이적인 대성공을 거두었다. 예외적으로 아리아보다 제3막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은 당시의 정치적 정황과 맞 물려 이탈리아의 국민적 음악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나부코〉라는 제목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탈리아식 줄임 명칭이다. 전체 4막으로 구성되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빌로니아 궁전으로 이어지는 방대한 스케일과 스토리로 구약 성경의 배경과 함께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의 조카 이스마엘과 바벨론 왕의 딸 페네나와 끼어든 아비가일과의 사랑이야기가 관객을 사로잡는다. 언제 들어도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유수의 세월 동안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불렀던 고향의 음악이 베르디에 의해 재창조되었을 때, 훗날 28개의 오페라들과 함께 위대한 오페라의 대가였던 모짜르트, 바그너, 푸치니와 함께 명 오페라의 대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는 계절에 진정한 자유를 그리워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향을 선포했던 고레스 왕의 해방선언문이 쥬빌리의 소식으로 해방 70주년이 되는 이 땅에도 그분으로부터 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의 새해가 되소서.

만천리에서 드리는 다니의 음악이야기, 2015년 새해 첫 번째였습니다. 샬롬! YN

글 / 김금찬 선교사



HE 한글로영어

처음부터 말하는 영어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돈 들여 영어공부하고도 아직 말을 못하십니까?
16년의 시간을 들이고도 아직 말을 못하십니까?
미국가면 거지도 하는 영어인데~ 왜 일까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으로만 공부했지 입으로 말을 안 해봤습니다.
발음에 자신이 없다고요? 연음처리가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한글영어가 모두 해결해 놨습니다!
어려운 문장, 긴 문장, 빠른 문장.. 다 쉽게 됩니다.
먼저 말이 되면, 듣기-읽기-문법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역설적 방법이라구요? 아뇨. 이것이 언어학습에 바른 순서입니다.

한글영어 개발자 : **장춘화 원장** 문의전화 033.762.7662 / 010.3403.8732

한글영어 100여권의 교재중 꼭 필요한 교재를 먼저 소개합니다

생활영어에 최고로 알려져 전세계 75개국에 보급되고, 국내 EBS-TV **〈호야네 집〉**으로 수년간 방영된 에니메이션 교재 **〈카이유〉**.
현 중, 고등 8종 교과서 단어를 분석분류해 **〈중등2600단어-학습장〉** **〈고등3000단어-학습장〉**을 완벽히 한글영어화!
토익과 토플을 위한 **〈이솝우화〉** **〈피터팬〉** **〈톨스토이단편〉**등 수준별 문학작품. 뉴스와 시사를 위한 **〈오바마, 루터킹-연설〉**
모든 영어책을 술 술 읽게 해주는 **〈한글식 파닉스〉** 하버드대 브레익아웃을 도입한 **〈신구약성경큐티〉** 등...



〈한글영어〉와 똑같은 본문으로 〈한글중국어〉교재도 나왔습니다.

이미 머리에 있는 영어문장을 그대로 중국발음화하니 너무 쉽게 말함.
〈생활중국어〉 **〈이솝우화〉** **〈비밀의화원〉** **〈키다리아저씨〉** **〈데니얼〉**.

알려드려요

춘천홀리클럽

1.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2.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장소 : 후평2동 796-11번지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010-3180-5330 지도 김귀신권사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주소 : cafe.daum.net/ccjmm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011-361-1995

한마음 조기탁구회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회비 : 월4만원
010-3375-4323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장소 : 춘천은혜교회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010-2492-4316 회장
010-6378-2261 지휘자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화요모임 헌신자 모집

대상 : 현대무용 워십찬양율동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20분
장소 : 우두동 벧엘교회 2층 주일학교 예배강당
010-9495-1029 한혜영 집사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장소 : 나눔교회
010-5521-3779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019-9138-4452, 033-251-4452

강원대학교병원 완화 의료병동

대상 : 전문적인 돌봄을 원하는 말기암 환자
033-258-9060 서현애 간호사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033-261-5652 입원상담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070-4383-4720, 010-7567-5012



<여러분이 성시화운동의 기수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 후원에 동참하는 단체 및 개인을 소개합니다.

개인

강옥자 강현숙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경아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정미 김정진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진구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덕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윤덕 박제자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옥자 심경하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중계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윤흥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뇌연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병일 이성숙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은경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진주 이철호 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임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희 장은희 장창순 전옥희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경희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조정화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예은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최춘영 탁광희 표복순 하명수 한명수 한정연 한희선 함종현 허 봉 허서구 허순영 허인영 현재영 홍기택 홍순복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재국 황호석

기업

거두주유소 베드로선교센타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예수제자운동 춘천와이신협 춘천YWCA 행복재가요양원 CBS

교회

갈릴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교회 동신교회 명성교회 바나바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성결교회 열린순복음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주의숲교회 주항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하늘평안교회 화목교회

후원계좌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신청 및 문의 033)-256-1260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2015학년도 후반기

한국복음주의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과 정	학과(학위)	수업년한	모집인원	지원자격
석사과정	목회신학 (M.Div.Equ.)	3년 (6학기)	00명	대학(4년)이나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자격인정자
연구과정	목회연구 (M.A)	2년 (4학기)	00명	대학(4년)이나 4년제 신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자격인정자
신 학 원	신학과 평신도학과	4년 (8학기)	00명	고교졸업(예정)자 및 동등자격인정자

우리학교의 장점

- 국내의 탁월한 교수진
- 예장교단 목사안수(M. Div. 졸업자)
- 선교사 후보생은 선교단체 파송
- 완벽한 교육시설과 도서관 이용
- 호주 피스신학대학교 유학 특전

| 전형일정

구 분	2014년 1학기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2015. 2. 17(화)
전형일시	2015. 2. 23(월) 오전 11시
전형장소	본교 교수실
합격자발표	2015. 2. 25(수)
개강일	2015. 3. 2(월)

협력학교: 한국제자훈련원(KDTI), 호주퍼스신학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문의

200-852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번길 87
T. 033/242-2819 F. 243-6705
E-mail : jdmkdtk@hanmail.net

한국복음주의신학교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2015학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 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

모집학과	과 정	응 시 자 격
신 학 과 (야간)	4년제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2.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무흠한 자 3. 침례(세례)를 받은 자 4.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단, 편입생에 한함)
목회학과 (야간)	3년제	
편 입	2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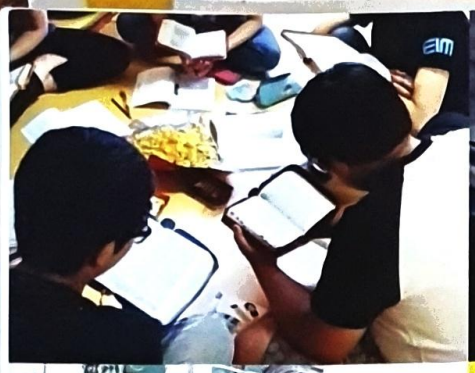
모집기간 : 2015년 2월 25일(수)까지
문의처 : 033-257-2740
010-3342-4812
FAX. 033-241-2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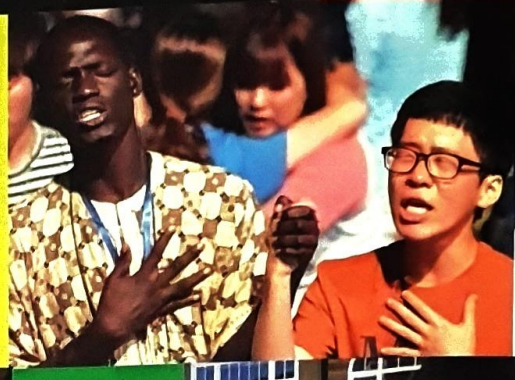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강원신학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한국 최고의 제자훈련 기관
37년 제자사역의 노하우

KDTI

JDM 예수제자운동



- 훈련기간 - 매년 3월 첫 주 개강 - 11월 마지막 주 종강
- 자매학교 – 한국복음주의신학교, 호주 퍼스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문의처 :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번길 97, T. 033/242-2819, jdmkdti@hanmail.net
홈페이지 www.kdti.org




교회)
교회)
천교회)
성결교회)
천교회)